

접근 기능으로서의 포털 사이트 집중화 요소분석

한영석 김만희<sup>0</sup> 이용주 장하은

수원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yshan@suwon.ac.kr, { estersss<sup>0</sup>, susuk85<sup>0</sup>, nestruev1<sup>0</sup> }@hanmail.net

Monopolized Portal Services as Addressing Meida

Young S. Han, Man H. Kim<sup>0</sup>, Yong J. Lee, Ha E. Jang  
Dept. of Information Media, Suwon University

요 약

대량으로 존재하는 웹자원에 대한 디렉토리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로의 집중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소를 통한 자원으로서의 접근은 약화되고 있다. 포털서비스와 접근수단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콘텐츠사이트 간의 확률적 모델을 통하여 포털사이트로의 집중화 현상이 콘텐츠 접근 모델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특징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시작페이지로 포털사이트를 설정하고 있고, 주소를 입력 할 때는 주소창 보다는 포털의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음으로써 포털서비스가 주소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

1. 서론

검색이나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의 지나친 집중화 현상은 기존의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던 포털기능인 주소창이나 북마크기능의 약화를 야기 하게 되었다.

인터넷 초기에는 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역할이 컸으나 현재는 그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용자의 방문을 상업적으로 연결하는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주소서비스까지도 대체하게 되어 그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광범위한 웹 자원이 소수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접근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도 방해요소가 된다.

접근수단과 콘텐츠 사이에서 포털은 그 자체가 콘텐츠이자 접근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들은 콘텐츠와 접근서비스의 조합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포털이 접근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포털의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절차를 설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페이지를 통하여 포털에 직접 접근하게 됨으로써 포털이 시작지점부터 브라우저와 동등한 지위를 얻어 내고 있다. 포털에 접근한 이용자의 포커스는 브라우저가 아닌 포털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 시에 포털의 검색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타 사이트로 이동한 후에도 이용자들은 다시 시작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결과적으로 포털은 방문 빈도 기준으로 콘텐츠 중에서는 약60%의 점유율을 접근수단 중에서도 약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이면서도 접근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털은 접근수단과 콘텐츠매체 중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접속수단 그리고 콘텐츠 등의 상호전이 모델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이

확률값을 구하였다. 이 모델에서의 포털의 수렴 상태 확률값(steady state probability)을 구하고, 포털의 접속수단의 기능을 제거한 뒤에 수렴 상태 확률값을 구하여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포털의 접속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브라우저 주소창의 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설문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여타 이용자 그룹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다른 이용자 계층에서도 큰 패턴에 있어서는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 2. 콘텐츠 접근 수단

### 2.1 접근수단

#### 1)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도구로 HTTP, FTP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소체계를 이용한다 [1].

URL은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

#### 2) 한글도메인

도메인의 2차 도메인을 영문 대신 한글로 입력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찾아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글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다.

### 2.2 포털의 기능

검색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의 도래는 하나의 사이트를 넘어 모든 여타 사이트로의 관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포털이 관문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더욱 포털의 역할이 비대해졌음을 보이고자 한다.

URL과 한글도메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한 접근 수단이다. 그에 비해 포털은 브라우저를 하거나 검색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시작페이지를 통하여 브라우저 주소창 만큼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로 정착하면서, 이용자들은 처음부터 포털에 접하게 된다.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포털을 벗어나 브라우저 주소창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보다는 포털에서 타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의 사이트접근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포털을 웹브라우저 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 3. 접근수단 마코프(Markov) 모델

접근수단으로서 포털이 가지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6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시작하여 콘텐츠로 들어가기 위한 접근수단 방법을 조사하였다 [표1].

번호	설문 내용
1	인터넷을 시작 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 URL, 한글도메인, 포털 )
2	인터넷 접속 후에 이동하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3	이동하신 콘텐츠에서 이용하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콘텐츠로 이동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URL, 한글도메인, 포털)
5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 표1 ] 설문지 내용

설문지 내용의 결과를 통하여 콘텐츠와 인터넷 접근수단 사이의 관계를 알아 낼 수 있으며 마코프의 전이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2]. 전이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크게 접근수단을 대표하는 노드들(URL, 한글주소, 포털)과 콘텐츠 노드(포털, 콘텐츠)로 구성된다. 포털은 콘텐츠이자 접근수단으로 간주된다. 처음 인터넷을 시작 하는 수단으로 포털이 89%로 가장 높다. 포털에 접속한 이용자의 반은(49%) 콘텐츠로 이동한다. 콘텐츠에서는 56%가 주로 시작페이지를 이용하여 포털로 이동한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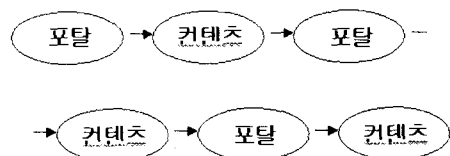


그림1. 가장 확률이 높은 패스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은 그림1과 같이, 다른 접근수단의 도움 없이 포털과 콘텐츠를 반복하는 것의 연속이다. 그림2에서 선행노드가 없는 에지(edge)는 시작 노드들간의 분포값을 의미한다. 포털이나 콘텐츠의 경우, 시작페이지를 통하여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림3은 각 노드의 수렴확률값을 보여준다. 주소창을 방문하는 빈도는 25%정도이며, 포털은 4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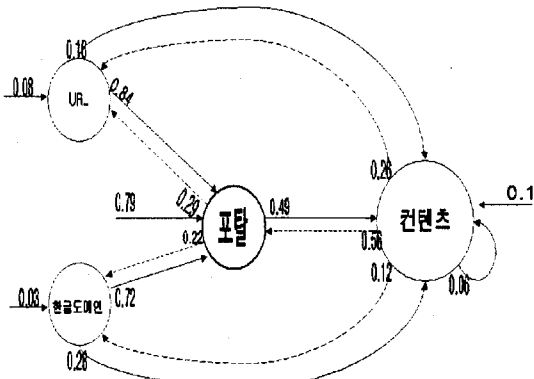


그림2. 접근수단과 콘텐츠의 전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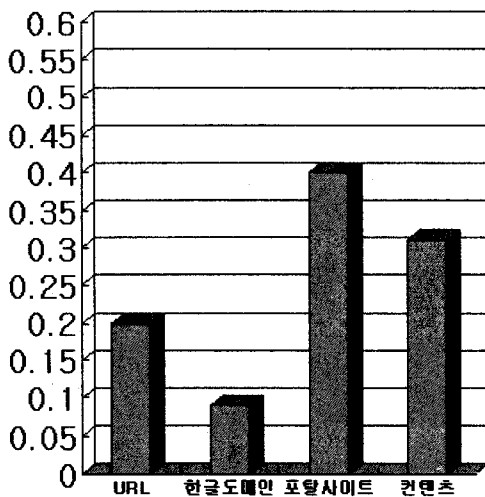


그림3. steady state probability

포털에 의한 콘텐츠로의 연계기능의 중요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콘텐츠에서 포털로 가는 전이가 49%에서 5%로 줄었다고 가정하였다. 포털로의 이동 동기가 선행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림2에서와 같이 49%가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포털로 접속하는 동기라고 가정하고, 그 값을 5%로 축소하게 되면, 포털로 접속하는 전이 확률값이 .44만큼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4].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포털로 이동하는 목적은 콘텐츠이용과 접근수단이용 등 중복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5는 포털의 접속기능을 약화시킨 후에 얻은 노드들의 접속빈도 확률이다. 포털사이트의 중요성이 1/2정도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은 그림4에서의 전형적인 패스의 모습이다. 포털이 약화됨에 따라서 주소창과 콘텐츠간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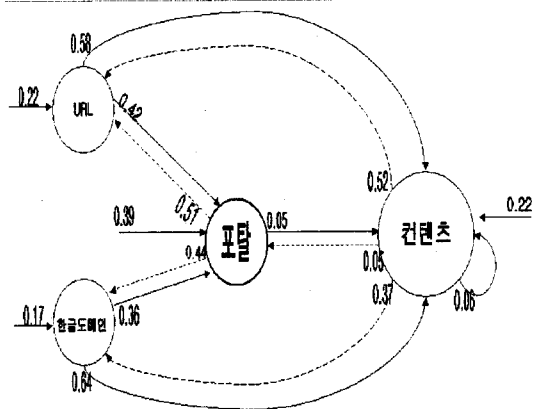


그림4. 포털의 접근기능을 약화시킨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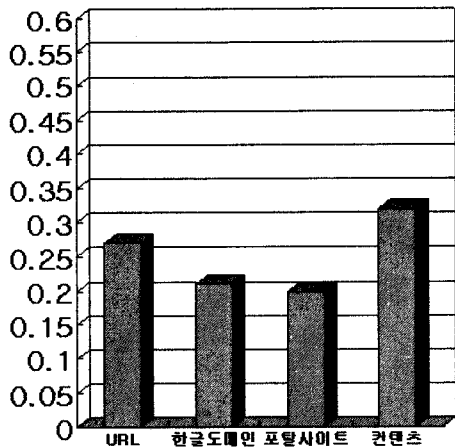


그림5. 포털의 접근기능을 배제한 모델의 steady state probability

포털 → 콘텐츠 → URL → 콘텐츠 → URL ...

그림6. 포털의 접근 기능이 약화된 후의 전형적인 패스

## 5. 결론

검색 포털사이트의 등장은 광활한 콘텐츠 공간에 대한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순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타 사이트로의 접근이 번거로운 일이 되면서, 포털서비스가 접근수단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주관적인 서비스가 인터넷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순기능 못지 않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포털의 기능에 대한 선행적인 구분을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포털의 접근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포털의 집중화를 가속화 시킨 주된 요인이란 것을 밝혔다. 접근수단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통하여 포털의 기능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T. Berners Lee. RFC 1738-Uniform Resource Locators. 1994.

[2] Michael K. Molloy. Fundamentals of Performance modeling.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9.